

# 매니큐어가 모네의 '연꽃'으로 변신

## 정산 스님, 프랑스 샤랑통 초대전 개최



다양한 색채와 대담한 형태, 빛을 이용해 구상과 추상을 오가는 작품. 어떤 작품들은 마치 모네의 '연꽃' 시리즈를 연상케 하며 관객을 명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매니큐어로 그린 이 그림들은 화려함 속에서 무(無)와 공(空)사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기성 작가들과 견주어도 손

색이 없는 탁월한 감각적 작품들을 선보인 정산 스님은 1월 20일~2월 12일 프랑스 샤랑통(Charenton)시에서 '제58회 Salon de Charenton 명예작가 김연식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약 25점의 작품을 출품해 작가 특유의 오묘한 동양정신의 세계와 특유의 조형어법으로 그려낸 무유의 이상적인 인간세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산 스님은 매니큐어라는 독특한 재료로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표현했다. 전시는 평면회화를 중심으로 전시벽면과 공간을 이용한 공간설치작품도 함께 소개한다.

정산 스님은 이미 사찰음식전문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런 스님이 매니큐어로 그린 그림을 들고 다시 대중들 앞에 나섰다. 사찰음식전문가라는 타이틀과 스님이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단연 이슈거리가 됐다. 어쩌면 스님 본인에겐 이

런 꼬리표들이 진정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방해물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산 스님은 오히려 그런 사찰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미술작품 활동에 주력했다. 전국 사찰을 돌며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찰 주변의 자연풍광에 매료됐고,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색채들을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냈다.

정산 스님은 '관조+명상'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세 번의 개인전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았다. 특히 작년에 열린 개인전에서는 2만 5000여 개의 성냥갑을 활용한 설치작품으로 '무(無)와 유(有)' '공(空)과 색(色)'을 다양하고 깊이 있는 관점으로 연출해 냈다. 이번 특별전에도 정산 스님의 작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지닌 고유한 색과 자연친화적인 미감이 함께 나타난다.



정산 김연식의 '관조+명상'

이번 전시는 프랑스 샤랑통시의 공식 초청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작가에게는 의미가 깊다. 샤랑통시는 프랑스에서 이름난 교육도시로, 60여 년간 살롱전을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정산 스님은 이날 개막식에서 샤랑통 시장상을 수여한다.

스님은 이번 개인적인 영예를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 문화교류의 장"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한국의 문화 알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 부처님이 메모꽃이로 나투다

###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박연옥 대상

부처님, 목탁, 연꽃 등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나투었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불교문화상품 및 제품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이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내 마음의 풍경'의 박연옥씨가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탑 등의 모양을 여러 겹 중첩시켜 메모나 명함, 필기류를 놓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금빛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구미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세트도 조립이 가능하며, 개인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작품이다. 또한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현대적이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2010년 12월 13~19일 접수된 이

번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총 270여 생활용품으로 나투었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불교문화상품 및 제품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이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내 마음의 풍경'의 박연옥씨가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 마음의 풍경'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탑 등의 모양을 여러 겹 중첩시켜 메모나 명함, 필기류를 놓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금빛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구미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세트도 조립이 가능하며, 개인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작품이다. 또한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현대적이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가공작업을 통해 불교문화상품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제4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작, 박연옥 '내 마음의 풍경'

## 90일만 허락된 '왕오천축국전'

### '실�크로드와 둔황' 전 열고 있는 최 광 식 국립중앙박물관장



(왕오천축국전)은 단, 90일의 전시가 끝나면 3월 17일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 최광식 관장은 1월 1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왕오천축국전)을 90일 동안

안 그리고 본문의 60cm만 공개하기로 프랑스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관장은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될 것이다. 반면, (왕오천축국전)은 반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프랑스로 흘러간 것이어서 사실상 문화재 반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왕오천축국전)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한국인에 의해 쓰인 최초의 해외여행기로, 세계 최고의 여행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풍습 등을 알려주는 세계의 유일한 기록물이다.

최광식 관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고려불화'전에 이어 '실�크로드와

둔황'전을 두고 세간에서는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치우친 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이에 최관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다수가 불교와 관련이 많아서 일뿐, 해외에 나가있어 쉽게 보지 못하던 우리 문화재를 전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고 말했다.

'실�크로드와 둔황'전에 이어지는 전시는 '바르코시대'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독교 문명을 보여주는 바르코시대와 이슬람문명, 마야문명전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왕오천축국전)을 비롯해 각종 회화공예 고분 출토품 등 실�크로드 유물 220점을 선보이고 있다.

천진영 기자

### 윤남진 REVIEW

##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



티핑포인트 | 말콤 글래드웰 저 | 21세기북스

《티핑포인트》라는 책은 이미 경영분야의 고전과 같다. 하지만 이 책은 범죄, 중독, 소비, 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심리가 어떤 법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티핑포인트(TippingPoint)라는 말은 유행의 출현, 극적인 전환, 갑작스런 범죄의 증감이나 자살시도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하고 전염되는 극적인 순간'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어떤 극적 변화나 전환의 정점은 어느 순간이며, 그 정후는 무엇이고, 그 정점은 어떤 핵심요소들이 작동해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티핑포인트를 완성시키는 3가지 규칙을 소수의 법칙,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이라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 법칙은 사회적 전염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의미다. 이 영향력

있는 소수를 저자는 커넥터, 메이븐, 세일즈맨으로 나눈다.

커넥터(connector)는 세상과 연결시키는 사람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 우리를 사회적 서클로 인도하는 사람들, 호기심과 자신감과 사교성과 정열을 가진 사람들이다. 메이븐(maven)은 '자신을 축적한 자'라는 의미이다. 우리를 새로운 정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세일즈맨(salesman)은 우리가 정보에 관해 미심쩍을 때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고착성 요소는 '메시지가 기억할 만한 것인가? 그 메시지가 기억할 만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변화를 창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행동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어린이프로그램인 '세시미 스트리트'를 사례로 들어 '이야기 형태'가 어린이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조직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마케팅 같은 것이다.

세 번째는 상황의 힘이다. 전염성은 그것이 발생한 시대와 장소의 조건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상

황이 전염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맥락의 변화를 초래한다. 저자는 상황의 힘이라는 규칙을 범죄의 전염이론인 '깨진 창문 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하나의 깨진 창문을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이 집에는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인식을 주게 돼 더 많은 창문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작은 무질서의 신호가 바로 심각한 범죄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상황의 힘이라는 규칙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탈맥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파악하고 거기서 티핑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전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군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즉, 바로 그 자리가 아닌 곳에 투입되는 자원은 곧바로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 부처님이 봉안된 범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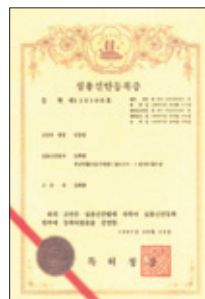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범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범륜대입니다.

###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범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